

## 드론업계 No.1 기업 DJI

- "드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죠.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DJI라는 기업이구요.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드론산업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까지 알려지게 될 수 있었던 것도 DJI의 역할이 컸다고 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죠. (솔직히 DJI의 팬텀 시리즈가 나오기전까지는 드론이라는 것이 군사용/연구용으로 전문분야에서만 사용되었죠.)
- DJI의 기업 소개와 더불어 DJI의 제품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각각 기종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운영중인 웹사이트로 연결해두었으니 DJI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께도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 같네요.

□ 작은사무실에서 4명이 시작하여 직원 수 8,000명까지...

- DJI의 풀네임은 Da 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입니다.



**DJI 이름의 의미는 미지에 대한 도전!!**

“Da 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로 중국어로는  
 “大疆創新科技(따쨡창신커지)”  
 우리말로하면 “대강 혁신 과학기술” 정도...

**大疆 = Big Frontier 를 의미**

**경계가 크다! 한계가 없다!**  
**미개척지(프론티어)에 대한 도전!**





- 중국어로는 大疆創新科技(따쟝창신커지) 이며, 우리말로로는 “대강 혁신 과학 기술” 정도가 되겠네요.
  - “대강” 이라는 것은 Big Frontier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개척지가 넓고 경계가 크다,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 DJI는 2006년에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립자 왕타오 (汪滔, Frank Wang)를 비롯한 20대 젊은이 4명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였죠. 왕타오는 홍콩과학기술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2004년에 홍콩에서 개최된 로봇대회에서 우승하여 그 상금으로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Shenzhen,深圳(심천)]"에서 창업한 DJI는 처음에는 드론 비행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 그러다 2012년에 첫 드론인 플래임휠과 팬텀시리즈를 출시하며 단숨에 매출이 5년간 1,000배로 점프업 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이네요.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2009년 매출 50만 달러 (한화 약 5.5억원) 에서 2014년 매출 5억 달러 (한화 약 5,5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매출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000억원)를 넘어섰고, 직원 수 6,000명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중국,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현재는 직원 수 8,000명 정도에 드론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점유하는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DJI의 성공비결은 제품의 "기능" 과 신제품 출시 "속도"

- DJI가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첫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를 모두 개발한다.
  - 둘째, 제품의 기능이 많으며 모두 완성도가 높다.
  - 셋째, 최초 개발사는 아니지만 드론을 산업으로 만들었다.
- 특히 여기서 두번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무언가 한두가지 기능이 빠져있는 제품을 출시하는데 DJI는 시장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진 완벽한 완성품을 내놓는 다는 것이 DJI의 성공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제품의 출시 속도 또한 타기업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2~3년의 기간을 두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드론업계에서 DJI는 6개월마다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거나 성능이 향상된 신모델을 내놓았죠.
-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2012년부터 5년만에 촬영용 시리즈 모델로서 스파크, 매빅,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만 19종이 출시되었고, 플래임휠, 스프레딩 윙스 등 산업용 드론을 포함하면 25종이 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모델만 그 정도이고 영상촬영장비 등 주변기기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 특히나 2016년 매빅 출시 이후로 스파크, 매빅에어, 매빅2 등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타사 제품들을 압도했습니다. 또한 휴대성이 좋으면서 성능은 전문 촬영급이고 가격은 저렴한 제품들이다보니 드론의 대중화에 가장 크게 공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No.1 드론 TV 정보채널

엔조이드론

비결은 제품의 “기능” 과 신제품 출시 “속도”



#### □ R&D투자와 조직문화

- DJI 제품의 품질과 속도가 타의추종을 불허하게 된 이유를 R&D 투자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직원 8,000명 중 1/4인 2,000~2,500명 정도가 연구원들이라고 하네요. 선전의 R&D 센터에서는 주로 항공기술 관련 R&D를 수행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실리콘밸리의 팔로 알토에서, 카메라 관련 기술 개발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R&D 센터의 평균 나이는 27세!! 공공기관 연구소에 갔으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젊은 개발자들이 DJI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충분한 개발예산을 투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No.1 드론 웹 정보채널  
엔조이드론 전직원의 1/4 정도가 R&D 센터 연구원



R&D 센터 연구원 평균나이 **27세**

젊고 유능한 인재가 기업을 만듭니다.

- 이렇게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보니 근무연차나 경험보다는 철저하게 성과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젊은 개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큰 성공비결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SBS뉴스 취재파일 DJI PR디렉터 "왕판" 인터뷰)